

! 학습목표

디지털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필요해요.

인터넷 속 친구들도 소중한요.

친구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 활동내용

디지털 세상의 배려에 대해 이해하여 좋은 친구관계 맺기

<p>01</p> <p>이해해봐요</p>	<p>활동 1</p>  <p>에티케티티 다시보기</p> <p>활동 2</p>  <p>에티케티티 내용을 이해하기</p>	<p> 영상 내용 살펴보기</p> <p>1차시 영상 시청 후 주인공 라퐁젤의 상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p>
<p>02</p> <p>알아봐요</p>	<p>나쁜 친구를 쓴 라퐁젤에게 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반장을 통해 단아를 찾았지만 미로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미로를 통과하여 라퐁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세요.</p>  <p>활동 3</p> <p>디지털 배려 알아보기</p>	<p> 디지털 배려를 잘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p> <p>미로의 출구를 찾으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배려'라는 단어에 접근하고 뜻을 이해해본다.</p>
<p>03</p> <p>느껴봐요</p>	 <p>활동 4</p> <p>악성댓글 피해자 감정 이해하기</p>	<p> 영상 속 주인공의 감정 이해하고 표현해보기</p> <p>영상 시청 후 특정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해본다.</p>
<p>04</p> <p>실천해봐요</p>	<p>배려 관심을 가지고 타인 사생활 도우주머니 조심해 주는 착한 마음</p>  <p>활동 5</p> <p>배려하는 마음 다짐하기</p>	<p> 배려하는 마음 알아보기</p> <p>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돕는 마음에 대해 이해해본다.</p>
<p>05</p> <p>생각해봐요</p> <p>심 화</p>	<p>악성 댓글을 피한다면 다른 상황에서 나처럼 어떻게 할 건가요?</p> <p>악한 친구가 유투브 댓글을 보다가 댓글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어요. 서로 고분고분 건담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활동 6</p> <p>상황 속 내 입장 생각해보기</p>	<p> 딜레마 상황에서의 내 입장 선택하기</p> <p>영상 스토리와 비슷한 내용의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입장을 선택해본다.</p>
<p>06</p> <p>더 깊이 생각해봐요</p> <p>심 화</p>	<p>나와 친구는 친구. 배려할 줄 아는 친구는 친구. 배려하는 친구는 친구. 배려하는 친구는 친구. 배려하는 친구는 친구.</p>  <p>나를 배려할 줄 아는 친구는 친구. 배려하는 친구는 친구. 배려하는 친구는 친구. 배려하는 친구는 친구.</p> <p>활동 7</p> <p>디지털 세상 속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 찾기</p>	<p> 디지털 세상 속 내 모습 생각해보기</p> <p>디지털 매체에서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p>

! 유의사항

디지털이 무엇인지 엄밀하게 알려주기보다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한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소셜미디어 등 매체를 이용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일상에서의 자세와 다르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알려준다.

영상 내용

에티케시티 - 100만 너튜버 라퐁젤

오염된 디지털 행성을 구하기 위한 배달이와 푸른이의 모험 이야기로 “에티케시티”에서는 악성댓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퐁젤을 돕는 활동입니다. 익명성을 대표하는 댓글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디지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고자료

? 디지털 에티켓이란?

디지털(digital)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e-메일이나 채팅, 게임 등의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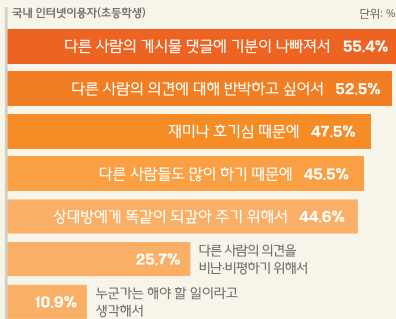
디지털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타인과 오해가 생겼을 때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할 때는 단순히 언어적인 요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몸짓과 눈맞춤 등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함께 사용해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할 때는 글과 이모티콘과 같은 언어적 요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악성댓글이 왜 나쁠까요?

나쁜 댓글은 ‘reply+악성’ 두 글자를 합쳐서 악성 리플라이(악플)이라고도 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은 게시자의 의도와 다르게 논점을 흐리고,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플은 비난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염성이 강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여론 조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이 나쁘다는 것을 왜 알려줘야 할까요?



출처: 정안라(2013).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과국의 대응방안.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거나 되갚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악성댓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더 생각해보다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의 흔적은 남기기는 쉬우나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게시물을 실수로 올렸다가 바로 지운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미 캡처를 했거나 공유를 하여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나의 활동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올바른 태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인터넷에 글을 남기거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욕을 하거나 놀려도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니?

